

다쓰야마석 채석장

다쓰야마석은 마그마와 냉수가 갑작스럽게 접촉하면서 형성된 미세한 유리질 파편의 집합체인 유리쇄설암(hyaloclastite)이며, 비교적 부드러워 건설용으로 오랫동안 선호해 온 희소 재료로 약 9,000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. 고분 시대(250 년경~552 년)부터 다쓰야마의 채석장에서 채굴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채석장은 세토 내해로 흘러드는 가코가와 강 하구 근처에 있어 출토된 석재를 수송하는 데 최적의 입지에 있습니다.

다용도로 사용되는 석재지만, 처음에는 석관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. 740 년에서 744 년 사이에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구니쿄(현재의 교토부)에 있는 황궁의 주춧돌로 선택되었습니다.

중세 및 근세(1185~1867)에는 불탑, 기념비, 불상 등의 건조물에 사용되었습니다. 현재는 목조 건축물의 주춧돌, 묘표, 이정표, 신사에 있는 도리이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다쓰야마 채석장에서 채석된 돌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비로운 힘을 지녔다고 하는, 다카사고 지역 오시코 신사의 거석인 이시노호텐(石の宝殿, 돌의 보전)입니다.

채석 방법은 돌의 용도 변화에 맞춰 수세기 동안 적절하게 채택되어 왔습니다. 그로 인해 이 채석장은 일본의 채석기술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. 현재는 2 곳의 다쓰야마석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